

소련의

KAL기 요격 만행규탄대회

寄協 13개 市道지부 잇달아 열려—



한국기생총박멸협회 및 건강관리협회 본부와 전국 13개시도지부 직원 일동은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정각, 일제히 규탄대회를 열고 소련의 비무장 여객기인 KAL기 요격만행에 대하여 비인도적이고 천인공로할 살인 만행을 규탄했다.

또한 이 규탄대회에서는 4개항의 결의문과 호소문을 채택했고 일본·대만등 10개 외국의 유관기관에 규탄협조 호소문을 발송했다.

결 의 문

1. 비인도적 만행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소련 공산당을 규탄한다.
1. 무기없는 민간 항공기에 야수 근성

나타낸 공산당을 처부수자.

1. 온 세계에 살인마 공산당이 발 붙일 곳 없도록 호소한다.
1. 피맺힌 비보를 거울삼아 국력배양에 전력을 다한다.

“ 구 호 ”

1.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소련 공산당 천인공노 만행을 전세계 평화인들에게 호소한다.
1. 비인도주의적인 소련 공산당 만행을 규탄한다.
1.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조종사들은 소련규탄 쫓기에 앞장서자.
1. 만천하에 규탄한다. 소련의 잔학성을.
1. 민항기에 요격한 야만인종 소련을 타도하자.

서병설회장

제 10차 APCO/FP 회의 참석

기협 서병설 회장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APCO 기생충학자 회의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 10차 APCO/FP 본회의에 참석했다.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가의 기생충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영양사업 등을 논의하는데 APCO/FP 회의에 앞서 제 5차 기생충학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병설회장이 "우리

제 5 차 APCO 기생충학자회의도

나라 편층 집단관리 방법"을 소개 하고 메벤다졸을 이용한 집단구충법을 제출 했다.

또한 집단관리 표준화기술과 특히 편층·십이지장충 집단관리법이 토의되었는데 회의내용을 서병설 회장이 주관하여 종합해서 APCO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15개국 93명이 참석했으며 다음번 회의는 네팔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日本 愛媛県 예방의학협회 KAL 사건, 回信 보내와

일본의 愛媛県 예방의학협회 사무국장 榎垣通夫씨는 寄協에서 발송한 규탄협 조서함에 대한 回信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謹 啓

親書 高맏게 拜受하였읍니다.

KAL007-747 旅客機에 對해 蘇聯機에 依한 攻撃은 容許할 수 없는 蠻行이며 全世界의 糾彈할 일입니다. 特別히 友邦인 貴國에 對한 攻撃은 우리들 에게도 상처를 자르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貴意에 同感하는바이며 連帶行動으로서 蘇聯에 抗議하고 싶 은 생각입니다. 더우기 近日中에 職場

大會를 열어 이 趣旨를 決議합니다.

1983. 9. 13.

韓國寄生虫撲滅協會

會長 徐 丙 高 貴下

日本国 愛媛県予防医学協會

事務局長 榎垣通夫

거리질서 캠페인 벌여

寄協,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IPU, ASTA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범국민질서운동"의 일환으로 본회 직원과 서울시지부직원은 9월 12일부터 9월 24일(11일간) 까지 청사앞 횡단보도에서 질서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 질서 의식계몽에 일익을 담당했다.

李柱源보건국장, 경북지부 방문

지난 8월 30일, 업무시찰차

李柱源보사부 보건국장은 지난 8월 30일 경북도의 방역대책 추진상황 시찰차 경북도에 내려온 길에 기협경북지부를 시찰했다.

이병내 지부장(부지사)와 같이 자부를 방문한 李국장은 김지묵 사무국장으로 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자리에서 李국장은 도와 기협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특별간흡충치료 사업 계획을 질문하고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李병내지부장은 건협외의 만성질환 조

기발견 사업을 전도에 확산키위해 검진 버스를 지원한 바있다고 말하고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조기발견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李柱源국장은 李병내 부지사에게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착수한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특별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석진후 보사국장, 조계연 보건과장, 손호익 환경위생과장, 방역계장, 의보 공단 경북지부장이 배석했다.

「건강2호, 3호, 6호」 활동

검진사업에 박차

◎...국민들의 건강검진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강 1호」 버스이외에도 이미 「건강 2, 3, 6호」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국민 보건향상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권을 카바하고 있던 「건강 1호」가 지금은 부산, 경남권의 주민들과 사업장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으며 국고보조로 새로 발주한 「건강 2호」가 지난 8월 31일 출고되어 서울권을 뛰고 있다.

◎...「건강 3호」는 경북도에서 기증한 버스로서 경북 및 대구권을 카

바, 불이 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권을 운행하는 「건강 6호」 코스타 버스는 중형 버스로서 본부에 있던 일산자동차를 배정 받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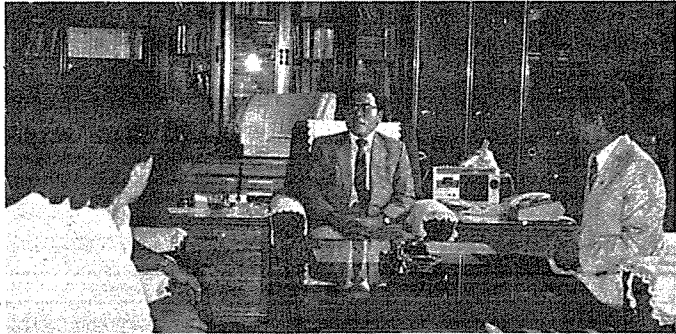
이것 역시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댈다.

◎...9월중에 아세아 자동차에서 제작완료되어 움직이게 된 「건강 5호」는 전남도의 특별배려로 보조된 버스로서 전남지방 주민의 건강검사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기타 시에서도 도와 절충, 속속 검진차량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이동검진사업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동검진차량 배차 고려할 터”

崔仁基부지사, 판독의들과 협조다짐



판독의들과
환담하는
崔부지사 ▶

崔仁基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장(충남도 부지사)은 지난 9월 10일, 판독의사를 초치, 충남 도민에 대한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최부지사는 판독의사인 충남의대 부속병원 건강관리과장 안승운 박사(심전도 판독)와 임상병리과장 박종우 박사(임상병리 판독)에게 판독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위 성인병 조기발견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부지사는 또 충남지역 특수성을 감안, 서해 도서와 벽지 주민에게까지 비전염성 만성질환 검진 혜택이 미치지위해서는 지부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동성확보를 위하여 이동 검진차량 배차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는 지

난 8월부터 도시 근로자에 대한 4,473건의 집단 건강검사를 실시, 이중 13%인 344건의 이상 소견자를 조기발견 지정의료기관에 요정밀 검사 또는 치료를 의뢰한 바 있다.

불우이웃돕기

寄協, 중추절 맞아 옛동료에

중추절을 맞이하여 인보 사업의 일환으로 본부 및 서울시지부 직원 일동은 전서울시지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퇴직하여 불우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는 김일도씨택을 방문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화곡동 소재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노인 및 불우이동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해서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다.

「三星그룹, 全 산하기업에 건강검진」

삼성물산외 33개 기업대상 공문시달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산하전체 그룹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제히 건강검진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검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될 이번의 건강검사는 기간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등을 필두로 하여 산하 33개 기업회사의 전직원인 피보험자 6만여명외에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10월 15일까지의료보험조합 총무과(대표 771-33, 구내 3347, 직통 753-6118)로 신청하라

고 공문 시달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하는 삼성 그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온 기업으로서 모든면에서 타회사의 모범이 되어온 바 있다.

또한 해태그룹, 현대그룹 등도 건강검진을 이미 실시해서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 바있으며 전국 농협, 금성그룹, 두산그룹 등도 검사를 받아 근로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코져 추진 중에 있다.

만성병과장에 金文湜씨

보사부, 9월 9일자 임명

보사부는 지난 9월 9일자로 보사부보 전국 만성병과장에 전 국립보전원 역학담당관으로 재직중인 金文湜씨를 전임 발령했다.

金과장의 취임을 계기로 기생충사업, 결핵사업, 나사업에 가일층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임 趙炳倫과장은 국립서울검역소장으로 영전한 바 있다.

「심장병 이야기 책자

발간」 전국 시도지부에

배부코 홍보활동 펴

健協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조속퇴치하고자 건강관리 시리즈 제 3집인 「심장병 이야기」 책자를 지난 9월에 발간했다.

48절지판으로 총 20페이지 분량인 이 책자는 15,000부를 발행, 전국 각시도지부에 배부하여 홍보자료로서 활용케 한 바 있다.